

수감자 아내들의 삶*

이 동 훈 전 지 열 김 주 연†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남편이 수감된 아내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는 13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 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하였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Strauss와 Corbin (1990)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51개의 개념, 32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넘어 나감”, “감옥 수발에 지침”이 나타났으며, 현상으로는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고립무원 속 분투”, “혼인파탄의 위기”,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부모인생 유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여러 의지처를 찾음”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가족 십자가 매기”, “도구적 몰입”, “남은 가족과의 연대”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자기 실존 이어가기”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남편을 대신한 자리에서 전투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가족 수용과 자기성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상정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교도소 수감과 관련된 아내의 경험을 통해 수감자 아내들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주요어 : 수감자 아내, 아내의 경험, 근거이론접근

* 본 논문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의 <2014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모델작업과 모델유형에 따른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보고서와 <2015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연구> 보고서의 심층면접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연구임.

† 교신저자 : 김주연, 성균관대학교, (110-74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명륜3가) 호암관 204호
Tel : 02-740-1984, E-mail : kingbutterfl@naver.com

1990년 10월 13일 정부가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지 25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여전히 “범죄와의 전쟁” 중이다. 한국 범죄백서(2015)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30년간 검거된 인원은 124.8%나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도소에서 출소한 12만 7793명 중 2만 8554명이 재수감돼 재복역율이 무려 22.3%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일, 2014, 10, 14). 이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5명 중 1명이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출소 후 사회복귀의 실패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상일, 2014, 10, 14). 이러한 출소자의 사회복귀 실패로 인한 재범율의 증가는 또 다른 범죄 피해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장 수감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위기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남아재소자의 75%가 구속을 계기로 이혼했다는 해외 선행연구결과와(Hairston, 1988)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지원대상 출소자 588명 중 150명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동아일보, 2013, 11, 26). 우리나라 수형자의 절반 이상이 기혼자이며 이러한 기혼 수형자의 70% 가량이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서울신문, 2013, 01, 25), 가족 구성원의 수감으로 인한 가정해체는 단순히 한 가정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이혼과 별거로 인한 가족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온 것과 비교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수감이라는 사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부모가 수감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칫 범죄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수감으로 행동장애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경험하며, 청소년 자녀들은 충격으로 불안, 불면증, 우울, 죄책감과 같은 고통에 휩싸인다(Bloom & Steinhart, 1993). 때로는 수감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며, 수감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낙인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자기이미지가 형성되어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는다(Parke & Clarke-Stewart, 2003). Simmons와 O'Neill(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감자의 자녀들이 다른 일반 자녀들과 비교하여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빈곤, 양육문제,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수감자의 자녀에게 범죄의 세대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부모의 수감이지만, 간접적인 원인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 간 한국에서 소년형법범죄의 증가폭이 성인 형법범죄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법무연수원, 2015), 청소년 범죄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큼 재소자 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 해 동안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손실액이 약 3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홍식, 민원홍, 김현민, 2010). 매년 범죄발생건수 및 출소자 재입소를

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감자의 사회복귀 실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재범방지에 대한 여러 이론적 논의들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범죄사회학자인 Travis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이다. 사회유대이론에서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Hirschi, 1969). 즉, 사회와 유대가 있으면 범죄를 생각하더라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사회와 유대가 약하면 범죄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재범 관련 연구들에서, 가족과의 유대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hr, Armstrong, Gibbs, Harris, & Fisher, 2005; Nesmith & Ruhland, 2008). Bahr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녀-아버지 관계가 출소자의 재범 감소 및 범죄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녀와의 관계를 “최상”이라 응답한 출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출소 6개월 이후 재수감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Bahr et al., 2005). 또한,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27명의 출소자 중 오직 6명(22%)만이 9개월 이내에 다시 교도소로 수감된 것과 비교하여,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44명의 출소자 중 30명(68%)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고되었다(Yocum & Nath, 2011). 따라서 재소자의 가족경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재소자와 가족 간 유대를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정책, 제도적 노력을 한다면 재범율의 감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여러 선진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가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체포단계에서부터 출소 후까지 가해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영국의 대표적인 재소자 가족 지원 조직인 ‘재소자와 그 가족의 파트너(Patners of Prisoners and Families Support Group: 이하 POPS)’는 재소자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재범방지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다고 밝혔다(Nobumoto, 2010/ 2014). 또한, 2008년 설립된 일본의 가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월드 오픈 하트(World Open Heart)’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해자 가족이 평소 느끼는 다양한 생각을 대화로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였다(Nobumoto, 2010/2014).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재소자 차원에서의 사회복귀에 대한 다양한 직업 및 기술교육 등은 이루어져왔지만, 재소자 가족의 어려움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재소자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일상생활 경험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 명시된 조항이지만, 혈연, 학연, 지연의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찍히는 순간부터 가족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함께 취업 불이익, 경제난 등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이동훈, 방기연, 2014; 이동훈, 신지

영, 오혜영, 박성현, 2015).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심리적 지원 차원에서 재소자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제도 안에서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부분의 재소자 관련 연구들이 재소자와 그 자녀의 경험에 대해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감자 아내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조명 받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수감기간 동안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소자의 사회 적응 및 재범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아버지 관계에 아내가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Nesmith와 Ruhland(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의 아버지를 향한 태도는 어머니의 감정과 행동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가장의 수감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가족해체 여부의 중요한 열쇠는 아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수감으로 인해 해체되는 많은 가정 중에서도 남편의 수감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켜낸 아내들에 대한 연구가 출소자의 사회복지 실패라는 사회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문제 예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감자 아내에 대한 연구는 현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된 계층을 탐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평범한 여성에서 수감자 아내로의 전략은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한 개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어야 함을 의미한다. 범죄자 아내라는 사회적 오명에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들과의 직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홀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Green, Wilson과 Lindy(1985)는 외상사건이 심

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으로 외상사건 자체의 특성, 개인적 특성, 회복환경과 관련된 특성을 제시하였다. 남편의 수감이 라는 외상사건에 대하여 개인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Tolin과 Foa(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더 많이 겪지만, 여성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로 진단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똑 같은 외상사건을 겪은 여성이 남성보다 여전히 더 높은 PTSD 발병률을 나타냄에 따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상사건에 현저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편이 수감된 창살 안에서, 창살 밖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표현한 수감자 아내의 말처럼(Girshick, 1996), 남편의 수감과 함께 일순간 창살 없는 감옥에 함께 갇혀버린 여성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해봄으로써 수감자 아내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국외 연구들은 남편의 수감이 아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raman, 2004; Comfor, 2008; Daniel & Barrett, 1981; Fishman, 1990; Lowenstein, 1984; Morris, 1965; Nurse, 2002; Schwartz & Wintraub, 1974; Wildeman, Schnittker, & Turney, 2012에서 재인용). 남편의 수감으로 남편과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아내는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며,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지위 하락 및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고 밝혔다(Geller, Garfinkel, & Western, 2011; Swisher & Waller, 2008; Wildeman et al., 2012에서 재인용). 하지만, 흥미롭게도 몇몇 아내들은 사이가 나빴거나 문제행동을 일삼던 남편의 수감

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기도 하고(Comfort, 2008), 남편의 수감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독립성을 새롭게 깨닫는 전환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Edin, Nelson, & Paranal, 2004; Nurse, 2002; Wildeman et al., 2012에서 재인용). 현재 국내의 경우, 수감자 아내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 최근에 들어서야 성매매 여성(안혜영, 오수성, 한규석, 2012; 이지민, 2007; 최현정, 2006)과 탈북 여성(이명순, 박경, 2011; 조영아, 김연희, 2010)을 중심으로 여성의 외상경험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수감자 아내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서구권에서 이루어진 만큼 남편의 수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감자 아내들의 남편 수감으로 인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드러내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수감자 아내들의 어려움을 밝히고자 한다. 복잡한 삶과 체험에 얽혀있는 맥락을 고려하여 수감자 아내들의 일상생활 경험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각에서 일상생활 세계의 경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탐구하려는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그 세계를 이해하며(Hatch, 2002/2015), 대상자의 경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심층적으로 깊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남편의 수감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감자 아내들이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변화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 중에서도 사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변화를 설명해주고 상호작용을 통한 매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수감자 아내들이 남편의 수감 중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주로 수감자와 출소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이인곤, 2015; 최영신, 2009; Nasser & La Vinge, 2006), 상대적으로 출소자 아내들이 남편의 수감 중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하다. 수감자와 자녀관계에 다리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출소자의 재범 예방에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감자 아내들의 경험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감자 아내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수감 이후로 수감자 아내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둘째,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수감자 아내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근거이론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무작위로 표집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적합한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수감을 경험하였지만, 남편의 출소까지 가정을 지켜낸 아내들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남성출소자의 아내들을 소개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지원 사업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계하여,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최대 10년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부양가족, 경제여건, 자립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은 비교적 수감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남편의 출소 후에도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20여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본격적인 연구면담을 하기 전 전화로 인터뷰 목적과 질문내용을 안내하였다. 그 중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최종 13명의 아내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및 면접 녹음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았고, 소정의 인터뷰 비용이 지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를 승인(No. 2014-10-001-004)받았다.

자료 수집

자료는 비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통해 구성했다. 자료분석 시에도 추가, 보충면담을 하여 모든 범주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수행했다. 연구참여자 당 1회, 평균 100분에서 120분이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장소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자택 근처의 면담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남편의 수감 정보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들의 반응, 극복과정, 가족의 의미 등 남편의 수감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비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은 “남편의 수감기간동안 경험했던 갈등과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수감기간동안 필요했던 지원은 무엇입니까?” 등이었다. 면접 중 면접 분위기,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 특이사항들은 기록되었으며, 면접 녹음테이프는 석사 과정 학생이 일차 전사 후, 연구자가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누락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수행되었다.

자료 분석

자료는 심층면담 기록을 원자료(raw data)로 하여 기본 틀을 구성했으며,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 방법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은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대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의 윤리적 문제 및 엄격성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특성상 최우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을 고려했다. 인명과 지명 등은 모두 삭제하고 번호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분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인터뷰 내용이 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질적 연구의 엄격성(rigor)이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Lincoln & Guba, 1985)를 말한다. 연구참여자와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확보를 위해 자료분석과 기술 시에도 보충인터뷰를 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분석과 해석 등을 제시하고 연구참여자로부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상담전공 교수 1명, 상담전공 박사과정 3명, 상담전공 석사과정 3명의 연구자들이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책임자는 질적연구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들 또한 질적연구 관련하여 훈련을 받았고,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경험이 있다. 질적연구 전문가로서 다수의 질적논문을 게재하고 질적연구방법론을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1명의 외부전문가(사회복지학 박사)에게 감수를 받았다.

결 과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6명, 40대 4명, 50대 2명으로 평균 연령은 41세였으며, 남편 수감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직업 활동에 참여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경상, 강원, 전라, 충청 등 전국에 걸쳐있었으며, 모든 연구참여자가 초, 중, 고, 대학생 및 성인자녀를 두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남편의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3명, 40대 6명, 50대 1명, 60대 2명으로 평균 연령은 45세였다. 연구참여자의 남편의 범죄 유형은 방화미수 1명, 사기 3명, 폭행 3명, 마약 1명, 횡령 2명, 강도 2명, 절도 1명이었으며, 수감 기간은 3개월부터 60개월이었다.

출소자 아내의 경험과정에 관한 기술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를 줄단위로 분석하고 개념군을 발견한 뒤, 이를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151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3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재적응의 구체적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낮이 나감

평범한 한 여성이 한 순간 수감자의 아내가 되어 갑작스럽게 맞이한 역경은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아무것도 모르다 뒤통수 맞아 억울했다’는 연구참여자 13의 말처럼 남편의 수감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았다. 아내의 사별 다음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구속이라는 기사를 보며 자신의 상황이 큰 충격임을 인지했으며(연구참여자 2), 남편이 수감된 후로 살림을 놓아버릴 정도로 낮이 나간 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6). 경제력은 없는데 어린 자녀를 두고 혼자 무책임하게 수감된 남편이 원망스러웠고(연구참여자 11), 남편이 수감될 것이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내들은 처음 접해보는 상황에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묻고 시작해야할지 막막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남편의 수감으로 커다

표 1.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목록

개념	하위범주	범주
본래 성실하던 남편이 사업을 하다 6개월 만에 망하고 수감까지 당해 말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음	남편의 수감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음	
평소에는 라면이나 탄산음료도 안 먹일 정도로 자녀의 식생활을 신경쓰는 편인데 남편 수감 후 며칠동안 애들 밥도 못해줄 정도로 낮이 나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별이고 두 번째가 구속이라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음	돌연한 남편 수감으로 생계대책이 없음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낮이 나감
자녀는 많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돈 한 푼 없이 혼자 두고 무책임하게 들어간 남편이 원망스러움		
갑작스러운 남편의 수감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구직을 해야 할 상황인데,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구직을 알아보기 힘들	처음당하는 일이라 갈팡질팡함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할지 막막함		
피해자와 합의 봐서 남편을 빼내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 생활비 지원 정보는 알아볼 겨를이 없음	수감된 남편과 자녀 모두 내가 돌봐야할 대상	감옥 수발에 지침
남편 수감 사실을 자녀가 이해하게끔 잘 이야기해서 남편 면회도 함께 찾아가		
비가오고 눈이 와도 매일매일 아기 얼굴 보여주러 면회를 감		
면회를 가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 남편을 안심시키려 노력함		
자녀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3개월 동안 매일 면회를 가서 알려 줌	남편 지원하기가 힘에 부침	
혼란 속에서 자녀를 돌보느라 슬퍼할 새가 없음		
남편에 대한 믿음은 깨졌으나, 그래도 기쁜 곳은 남편이라는 생각에 힘들 때마다 면회 가서 힘을 얻고 있음	남편을 빼내려는 필사적인 노력	
어떻게든 영치금을 한 달에 30만원씩 보내주어, 돈 없으면 사람행세도 하지 못하는 수감생활에 힘이 되어 줌		
형편이 어려워 자주 면회 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화상 면회라도 함	남편을 빼내려는 필사적인 노력	
생활하기도 힘든데 수감된 남편이 미워서 일 년 가까이 면회 가지 않음		
같이 힘들지는 생각으로 수감 중인 남편에게 돈이 있으면 부치고 없으면 안 부침	고립무원 속 분투	
무죄 주장을 하며 여러 번 재판과 항소를 했으나 구속된 남편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위해 노력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남	남편에 대해 수감된 남편이 미워하고 흉보고 무시할까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월급을 땀겨 받는 등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여 남편의 형량을 줄이려 노력함		
부채도 천 만 원 정도 있고 친정도 멀어 의지할 곳 없는 상태였지만, 아이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신랑의 무죄를 믿으며 재판 자료 들고 뛰어 다님	남편에 대해 분노	혼인파탄의 위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집을 나오기까지 했는데 수감되어버린 남편이 원망스럽지만, 분노를 표현할 곳이 없어 억누름		
주변에서는 시간 금방 간다고 걱정 말라며 위로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분노	
남편 수감에 대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고 주변에서도 흉보고 무시할까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움		
친정에서 헤어지라고 할까봐 말하지 못함		
자식이 수감됐다는 안 좋은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현실에 대해 얘기하지 못해 외로움		
자녀들이 너무 어려 슬퍼하거나 감정 추스를 새가 없었음		
결혼하고 나서도 한 가정의 가정이 폭력으로 수감되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고 남편의 무책임함에 화가 남		
다른 사람은 수감이 되더라도 생활비를 마련해 놓고 들어간다던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간 남편이 원망스러움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에 대한 자책과 아무것도 모르다 겪는 역경에 대한 억울함	결혼에 대한 후회	
남편의 문제행동을 알고 결혼을 만류하던 친정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한 것에 대한 후회스러운 마음 (이혼) 서류만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사실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면회 갈 때마다 현실감각 없이 수감자들과 사업구상하고 있는 남편이 답답함	이혼의 위기	
수감 중이던 남편이 스스로 회망이 안 보인다면 면회 오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함		
시택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형편이 안 됨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못함	
남편의 반복된 사건사고로 자포자기하고 위로는커녕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으신 시택식구들에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움		
평범했던 남편이 사건에 연루되자 사람은 좀 꺾어봐야 안다며 남편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 친정식구들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
경제적으로 힘들어 친정엄마와 친정 언니, 친구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것이 불편함		
결혼을 반대했던 친정 식구들 불 면목이 없어 연락하지 않고 지냄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살기 싫다 등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못함		
남편이 수감되자 이혼을 바라는 친정 부모	가족의 짐이 됨	
살기 바쁘고 형편이 좋지 못해 떳떳하게 친정 형제들과 교류하지 못함		
가난한 시택 살림에 부담이 될까봐 합의금을 얘기하지 못함		
예를 셋을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정에 도움을 청함		
살고 있던 집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더 작은 집으로 옮김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이동	
형님과 아가씨가 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트러블이 생겨 친정으로 내려감		
주거공간이 없어 친정집으로 거주지를 옮김		
전문기술이 없어 단순노동이라도 일하고자 함. 간병이나 청소 등 곳은일을 마다않고 함		
남은 건 건강한 몸통이 뿐이라 생각하고 닦치는 대로 일을 함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자녀 양육비, 교통비 등 생계유지가 어려움	빈곤한 계층으로 밀려나기	
법정 공방을 하며 사람도 잃고 금전적인 것도 잃고 적금, 보험 등 10여 년 동안 쌓아둔 모든 재산이 다 제로가 됨		
집이 넘어가고 살림살이에 빨간딱지가 붙음		
창피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받음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신경 쓰고 싶지만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음		
사교육 지원 등 자녀에게 넉넉하게 잘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면목 없음		
자녀가 반장임에도 급식비를 밀리는 데 대한 미안함		
사별 후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수감되어 남편 자녀와 전 남편의 자녀 모두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자녀에게 면목 없음	부모인생 유전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남편 수감상황도 모르고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해 부담스러우면서도 미안함		
자녀가 대학도 못가고 직장을 다니는데 적금 들어놓은 것은 아빠 필요한 데 다 쥐버리고 시집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됨. 울며 아빠를 원망하는 자녀를 보며 가슴이 아픔		
텔레비전에서 교도소가 나오면 우리 아빠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짐		
아버지의 빈자리도 문제지만, 자녀들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용돈이 시급함.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		
형편이 어려워 자녀가 다니던 학원을 끊게 되면서 점점 공부를 안 해 성적이 떨어지는 자녀를 보며 안타까움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사춘기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아 난폭해짐. 문밖을 걷어차거나 반찬투정을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방황하는 자녀를 보며 걱정됨	자녀의 일탈에 대한 깊은 근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남편수감 시기에 찍은 자녀의 사진을 보면 얼굴표정이 포악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		
자녀가 남편의 전철을 밟아 감옥에 가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될까 염려됨		
남편의 수감 사실을 알고 일탈행동을 함. 오토바이 타다가 세 번씩 떨어지기도 함.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픔		
이전과 달리 자녀 양육 문제를 남편과 상의하지 못해 혼자 감당하기 버거움		
남편 수감 중 자녀가 스트레스를 말없이 속으로 삭히고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늦게 들어오는 등 행동의 변화를 보임		
처음엔 이해하는 것 같은 자녀도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와 비교해가며 힘들어 함. 심리 상담을 받고 눈이 통통 부을 정도로 울고 오는 자녀를 보는 게 안쓰러움		
남편의 수감으로 갑자기 범죄자 가족으로 찍혀 수치감을 경험 함. 자녀들 중 특히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군대를 가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자녀의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 됨	자녀의 앞날이 걱정	
남편의 수감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안 좋게 생각해서 벗어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가장 많았음		
남편에 대한 원망과 푸념을 편지에 쏟아낼 것 같아 자주 편지하지 않음		
남편의 수감에 대해 떠올리면 부정적 감정의 여파 때문에 생활유지가 안됨	살인적 스트레스 속에서 버텨내기	
자녀에게 같이 죽자고 얘기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자살충동 및 우울, 불안 등 심적 어려움을 경험함		
남편 수감 후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변함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상선에 걸렸는데도 모르고 지냄		
전기요금이나 분유값, 교통비 등 생활비가 부족해 급하게 생활전선에 뛰어 들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매일 죽고 싶었고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났음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
친정에 남는 방이 없었다면 길바닥에 아이들과 나앉았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림		
재산과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보호마저도 제외 당함		
당장 살 집이 없어 값싼 월세 집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 서글프고 불안함	일상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 함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심리적 압박을 받음		
들어가는 남편은 밤이라도 국가에서 쫓지만, 남아있는 가족은 끼니도 먹지 못해 자녀만 아니면 내가 수감되고 싶은 심정		
시아버지 조의금까지 생활비에 보태며 일상을 견뎌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충당하며 견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두 살,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함		
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가 오토바이 폭주 등으로 방황할 때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상담으로 변화될 수 있었음에 감사함	학교 선생님의 지원	
남편 수감 중, 기출한 자녀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 옴		
지인들이 거절하는 사람도 없이 합의금을 바로 바로 빌려 줌.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도 같이 가 줌		
고향 친구가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줌	친구들의 지지 및 지원	여러 의지처를 찾음
10개월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을 돕던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왜 못 돌아왔을까 미안하다며 100만원 줌. 지금은 힘들지만 10년 후에는 나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줄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짐		
남편의 수감사실을 말해도 이전과 다르게 대하지 않는 친구가 큰 힘이 됨		
남편과 접견을 하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늦어질 때가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직장상사)이 믿고 이해 해 주심	직장에서의 지지 및 지원	
직장 상사 등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의 상황을 알고 생활비를 지원해 줌		
주위 직장선배들이 남편을 마음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줌		
면회 온 다른 분들과 대기실에서 서로 위로함	기타	

종교에서 간부와 1:1대화가 가장 큰 도움이 됨. 연륜 있는 분이 조언해 줌	사회적 지지체계의 작동	
남편이 나쁜 것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감 전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에 대한 신뢰와 측은지심으로 견뎌		
처자식 먹여 살리려다 수감된 남편에게 미안함		
결혼 전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었으나 결혼 후 열심히 생활한 남편을 기억함		
수감을 남편의 문제 행동이 변할 기회라 생각하고 남편의 출소를 기다림. 수감을 금연클리닉 갔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남편에 대한 희망 품기	
교도소를 갔지만 마음은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장점을 더 많이 보고 단점은 천천히 고칠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보고 견뎌		
수감 전에는 술 담배도 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던 아버지를 자녀들이 믿어 줌. 아버지의 벌금을 자녀들이 대신 내주기도 함		
급한 마음에 죄를 짓고 수감된 것을 후회하는 남편을 보며 희망을 가짐		
가족이라고는 자녀밖에 없어 자녀에게 많이 의지함		
가족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버틸 수 없음. 가족이라는 끈은 하늘이 주신 거고 하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도박을 일삼던 남편이 술 마시고 자다가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지 않은 기억이 있어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하지 못함	가족 십자가 매기	
남편을 떠날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가 아빠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뎌		
가정을 쓰다 달다해서 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견뎌. 남편이 미워서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해 본적 없음		
남편이 수감되었을지언정 자녀가 잘 자라야 나의 삶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낌		
자녀에 대해 개조명하게 됨. 자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려고 했는데, 키우다보니 자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가족은 내 운명	
남편의 잘못이 크지 않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되어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을 많이 완화시킴		
아내 자신에게 남은 거라곤 가정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잃으면 다 잃는 거라는 생각에 가정을 지키려 노력함		
아내 자신마저 흐트러지면 애들도 흐트러질 것이라는 생각에 버텨		
자식 아니었으면 내 갈길 갔을 것임		
남한테 이용당해서 수감된 남편을 나마지 등 돌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정을 유지함		
자식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마음을 다잡게 됨		
5년이라는 긴 남편의 복역기간을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음		
책을 인생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이겨 냄. 삶의 가르침, 나침반 같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얻음	고통을 잊기 위한 몰입	
요리를 배우면서 견뎌. 가만히 있으면 잠생각이 나서, 뭐라도 배우면 시간이 가니까 도움이 됨. 또한 도우미로 나가서 일을 해준다던지 돈벌이도 되고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서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도움 됨.		도구적 몰입
생계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자기 정서, 취향도 챙기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냄.	새로운 관심거리 찾기	
일반 학원은 수강료가 비싼 반면 여성회관이나 저렴한 기관에서 배우는 것은 부담도 적고, 자녀들과 예기 나눌 거리도 되어 여러 면에서 도움 됨		
시부모님이 매일 면회를 와주시거나 돈을 지원해 주시는 등 다각적으로 도와줌		
친정식구가 사위도 자식이라고 수감된 남편을 마음으로 받아들임	친정과 시댁의 지원을 받게 됨	남은 가족과의 연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친정식구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거나 자녀의 학업을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됨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시댁 형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줌	
양가 형제들과 지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사정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 변호사비를 마련함	
집에 있던 모든 걸 잃게 되어,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게 됨	
직장 다니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등 아빠 없는 울타리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메꿔 주심	
친동생들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마움	
남편 수감 중 심적으론 자녀들, 물질적으로는 형제자매들 및 지인들이 큰 힘이 됨	
넉넉하지 못해도 시댁과 친정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 먹으며 도움을 얻음	
남편의 수감상황을 목격하고도 스스로 알아림을 하는 자녀가 대견하고 고마움	
아빠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엄마를 이해하고 동생을 챙기는 자녀가 고마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살림에 보탬을 주고 자력으로 시집 감	방황하지 않고 알가림하는 자녀
자녀들이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밥을 하는 등 살림을 하는 데 도움이 됨. 스스로 하려는 모습이 대견하고 고마움	
우리 집은 남편이 수감을 하게 되었지만, 집집마다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견뎌	
그 전부터 더 힘든 일도 겪어 왔는데 살길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함. 남편이 출소할 때까지 굶지 않고 견디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버텨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견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견뎌	
친정 부모님이 힘들어도 한 번 하는 결혼은 쉽게 깨는 게 아니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은 해봤지만 본인에게 벌여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버텨	버텨내기 위한 사고의 전환
중1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5남매를 키우신 친정어머니를 보고 자라며, 친정어머니도 버티셨는데 자신도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을 얻음	
살면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함	
이 문제를 남편이 잘못했고 남편 문제더라는 생각보다는 내 문제로 받아들임	자기 실존 이어가기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성경 교리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함. 성격자체가 긍정적인. 인생이 60부터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부터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함	초월적 존재에 의지
남편이 이해 안 되고 미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종교(남묘 호랑교)에 의지 함. 재량소멸(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나는 고생하지 않는다)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하고 기도 함	
“전생에 빛이 많았나보다”하며 남편을 다독임. 한낱이라도 젊은 날에 얼른 일어서는 게 낫지 않냐며 설득 함	
종교 활동을 하면서 경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음. 살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 “내 팔자, 내 숙명”으로 받아들이자는 마음으로 버텨	팔자와 운명으로 받아들임
헤어지려고 하다가도 용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하듯, 팔자는 도망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겨냄	

란 충격을 받음’, ‘돌연한 남편 수감으로 생계 대책이 없음’, ‘처음당하는 일이라 갈팡질팡함’으로 하위범주화 했고, 생애 돌발사건으로 인해 받은 충격으로 삶이 붕괴될 정도라 생각되어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넋이 나감’이라는 보다 큰 범주로 묶었다.

감옥 수발에 지침

충분히 슬퍼하고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연구참여자들은 혼자서 어린 자녀를 돌보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동시에 수감된 남편을 위해 애써야했다. 매일매일 면회를 가서 남편에게 자녀의 얼굴을 보여준 참여자들도 있었고, 사춘기를 지난 자녀의 정서적 안

정을 위해 자녀를 데리고 면회를 가서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게 했다(연구참여자 2). 또한,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모르는 자녀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면회를 간 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3). 형편이 어려울 때 화상 면회만 하기도 했으며(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3은 생활하기도 힘든데 수감된 남편이 원망스러워 일 년 가까이 면회도 가지 않고, 남편이 자녀에게 쓴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수감된 남편과 자녀 모두 내가 돌봐야할 대상’과 ‘남편 지원하기가 힘에 부침’으로 하위범주화 했으며, 연구참여자 1이 감옥 뒷바라지에 점점 힘을 잃어갔다고 생각되어 ‘감옥 수발에 지침’으로 범주화 했다.

고립무원 속 분투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합의금을 빌리러 다니기도 하고(연구참여자 5), 직접 법정에서 서서 남편을 변호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 그러나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쉽사리 말하기도 힘들었다. 남편 수감사실이 알려지면 ‘고생을 사서한다.’는 등 주위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할 것을 우려하여 남편은 지방에 갔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어떤 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 사실을 친정 식구들이 알게 되면 이혼을 강요할 것을 우려하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인 ‘남편을 빼내려는 필사적인 노력’과 ‘병어리 냉가슴’으로 하위범주화 했고 이는 다시 ‘고립무원 속 분투’로 범주화 했다.

혼인파탄의 위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막중한 현실을 감당케한 남편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 3은 결혼 전부터 수감경력이 있었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잘못을 반복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매우 분노했다. 연구참여자 11은 친정에서 반대한 결혼까지 했는데 수감을 당한 남편에 대해 믿음이 더욱 깨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힘겨운 현실과 맞닥뜨린 아내들은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대해 자책하기도 하고, 서류만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사실에 남편을 떠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1).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발등을 찍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고, 이혼을 고려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6은 남편의 도벽 때문에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음에도 결혼을 강행한 것이 후회스러웠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꾸밈이 편지에 쏟아질 것만 같아 편지 쓰는 것조차 자제하곤 했다.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분노’, ‘결혼에 대한 후회’, ‘이혼의 위기’로 하위범주화 했고 이는 연구참여자 1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위기에 봉착했다고 판단되어 ‘혼인파탄의 위기’로 범주화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

연구참여자들은 친정과 시댁에 남편의 수감 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2는 괜한 오해를 받을까 친정에 남편의 수감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연구참여자 8은 시댁식구에게 남편의 수감을 알

리면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 합의금을 만들 것을 우려하여 수감 사실을 감추었다. 연구참여자 5는 시가가족으로는 유일하게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계서 말씀드릴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 7, 8은 원가족에게 돈을 빌렸지만 상환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못함’, 가족의 짐이 됨’이라는 하위범주로 구성했고, 이러한 하위범주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남편의 수감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깊은 수치라고 판단되어져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으로 범주화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남편의 수감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아내들은 가족 생계를 위해 현실적으로 대처했다. 갑작스런 남편의 수감으로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내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그 차액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도 하고, 친정으로 거주지를 옮겨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친정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자녀 양육과 생활비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남편 수감 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아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단순한 노동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2는 남편이 출소할 때까지 간병, 청소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연구참여자 5는 남편의 합의금을 갚기 위해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 낙인감을 떨쳐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될 수 있는 식비, 도서지원, 멘토 연계 등의 혜택을 찾아보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이동’과 ‘빈곤한 계층으로 밀려나기’로 하위범주화 했으며, 이들이 사회 소득과 주거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하락되었다 생각되어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범주화했다.

부모인생 유전에 대한 두려움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쉽사리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으며,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지 못해 한 연구참여자는 자녀를 ‘거의 방치’했다고 표현했다. 남편이 수감되고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도 하고 자녀가 남편의 전처를 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아버지를 크게 원망하기도 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에게 난폭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하기도 했다. 일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되어버린 자녀들은 자신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해 깊은 근심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자녀에게 면목 없음’, ‘자녀의 일탈에 대한 깊은 근심’,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되었다.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에게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되어 ‘부모인생 유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주화했다.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연구참여자들은 자살충동과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연구참여자 7은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던 중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고 연구참여자 6도 삶이 너무 힘들어 자녀에

게 같이 죽자며 울었다. 연구참여자 10은 남편의 수감 경험에 대해 떠올리기조차 어려워했다. 떠올리면 여파가 오래가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

남편의 수감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이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남편이 수감되면서 당장 먹고 살 돈을 구하기 위해 평범한 가정 주부였던 아내들이 생활전선에 뛰어 들었다.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가 끊겨 매달 한 달에 두 세 번씩 일회용 가스를 충전해서 써야할 만큼 열악한 상황 속에 방치된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살던 집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보증금으로 대체하다가 보증금마저 다 없어졌다. 연구참여자 9는 부채로 인해 집이 넘어가고 살림살이마저 경매에 넘어가 빨간딱지가 붙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었다. 남편이 부채를 남겨두고 수감된 극심한 사례의 경우, 채권자들이 들락날락할 때마다 아내는 불안감을 홀로 온전히 감당해내야 했다. 아내들은 자녀 명의의 적금, 시아버지 조의금, 살던 집까지 팔아 아등바등 버티다 구청과 동사무소로 도움을 구하려 다녔으나, 재산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아 급하게 직장을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3).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같이 위로와 지지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가족들은 남편이 초범이 아닌 경우, 아내들에게 전가시키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7은 자녀를 돌봐주지 않고 친정으로 가게 만든 시댁이 원망스러웠는데, 친정도 없었다면 아이를 버렸을지 남편을 영영 안 봤을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연구참여자 1은 처음엔 시댁에서 자녀를 돌봐주다가

고부갈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살인적 스트레스 속에서 버티내기’, ‘일상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 함’으로 하위범주화 했고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웠다고 판단되어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로 범주화했다.

여러 의지처를 찾음

비밀스럽게 혼자 간직해온 남편의 수감 사실을 친구에게 얘기했을 땐, 편견없이 수용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웠다. 연구참여자 7은 부모님께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도록 친구가 독려해주었고, 연구참여자 8은 생활이 힘들 때 돈을 빌려 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자녀의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등 주변 지인들의 도움도 컸다. 자녀의 학교 선생님은 자녀가 게임 중독이나 일탈행동을 저지를 때, 이를 바로 잡아 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 주셨고 아버지 수감으로 인해 방황하던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오토바이 폭주 등의 일탈행동을 했을 때는 선생님의 상담과 관심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5는 합의금이 필요했을 때 직장 상사인 미용실 원장님이 바로 빌려 주셨는가하면, 사건 처리 때문에 직장에 늦어도 이해해주셨다.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는 친구가 기꺼이 같이 동행해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 이혼하라는 부모님의 압박 속에서 이혼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 종교적으로 의지될 만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 선생님의 지원’, ‘친구

들의 지지 및 지원’, ‘직장에서의 지지 및 지원’, ‘기타 사회적 지지체계의 작동’으로 하위 범주화 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이외의 주변 의지될만한 존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여러 의지처를 찾음’으로 범주화 했다.

가족 십자가 매기

남편의 수감이라는 큰 위기에도 가정을 지켜낸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수감된 남편에 대해 선입견부터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힘들어하면서도, 수감 전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끔찍이 생각하던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다. 연구참여자 10은 없이 살아서 그렇지 지금까지 남편이 보여줬던 강한 정신력과 생활력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아이들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남편을 기다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다 잘못되어 수감된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했으며, 수감된 남편을 포기하고 외면한 시댁식구들을 보며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수감이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켰던 힘에 대해서는 ‘아이들 때문에’라는 답변이 절대적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친정 부모님이 7남매를 책임지려 애를 많이 쓰셨던 것처럼,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반듯하게 키워야 한다며 자녀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나타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준다 해도 아버지 있

는 가정환경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11은 남편과 헤어지려고 1년간 연락을 끊어보기도 했으나, 결국 자녀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남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남편에 대한 희망 포기’, ‘가족은 내 운명’으로 하위범주화 했고,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가족을 자신의 존재 부처로 여기고 스스로 부담을 지고자하는 마음으로 해석되어 ‘가족 십자가 매기’로 통합하였다.

도구적 몰입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출소를 기다리며 고통을 잊기 위해 관심거리를 다른 곳에 두려 노력했다. 연구참여자 4의 경우 요리를 배우러 다니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조금 잊고 버틸 수 있었다.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가만히 있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던 남편의 수감 사실이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책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연구참여자 2, 6). 취미생활이나 독서는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고통을 잊기 위한 몰입’, ‘새로운 관심거리 찾기’로 하위범주화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이 고통을 잊기 위한 다양한 도구적 방법들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도구적 몰입’으로 범주화 했다.

남은 가족과의 연대

친정과 시댁식구의 지원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친정식구는 남편의 수감을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7은 친정식구가 사위도 자식이라며 남편을 잘 받아주셨으며, 사위가 기죽지는 않을까 싫은 소리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셨다. 연구참여자 5는 친정언니가 화장품, 음식 등 필요한 것을 시장봐 주거나 챙겨주기도 하였고, 연구참여자 8은 이모가 자녀의 진로를 정해주고 과외비를 대주거나 직접 과외를 해주기도 했다. 형편이 어려워 월세를 전전하다 친정집으로 아예 들어가 살면서 생활비를 줄여가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8). 반면, 친정식구가 남편의 수감에 대해 알고나서 이혼을 바라거나 이혼하려고 할까봐 친정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연구참여자 5). 한편, 자녀는 아내가 남편의 수감을 견디게 한 가장 큰 힘이였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 수감 중 자녀들이 돈을 모아 아버지의 벌금을 내주는가 하면, 대학을 다니면서 공과금을 책임지기도 하고, 집안 살림을 맡기도 했다. 아빠의 빈자리를 투정하기보다 알아서 동생들을 더 잘 챙기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친정과 시댁의 지원을 받게 됨’, ‘방황하지 않고 앞가림하는 자녀’로 하위범주화 했으며, 자녀를 비롯한 친정과 시댁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견뎌가며 가족이 하나의 연대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남은 가족과의 연대’로 범주화 했다.

자기 실존 이어가기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 수감이라는 역경을

버티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음을 바꾸려 노력했다. 집집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했다. 종교생활을 통해 삶의 중심을 잡고 이 모든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버텨나갔다(연구참여자 2, 6). 연구참여자 6은 남편의 수감이 남부끄럽고 원망도 났지만, 팔자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전생의 빚으로 인한 숙명적인 결과로 받아들였다. 연구참여자 8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을 때, 그동안 쌓았던 재산은 내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10년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사라져서 10년을 더 짧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못났지만 자신의 남편, 자녀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 한편, 친구가 힘들었을 때 자신을 도와준 것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며 견디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8).

이러한 내용은 ‘버티내기 위한 사고의 전환’, ‘초월적 존재에 의지’, ‘팔자와 운명으로 받아들이기’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고통 속에서 발견하고 사건에 압도되기 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고 판단되어 ‘자기 실존 이어가기’로 범주화 했다.

남편의 수감을 경험한 출소자 아내의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념, 하위범주, 범주로 분해한 자료를 패러다임 모형에 의거하여 재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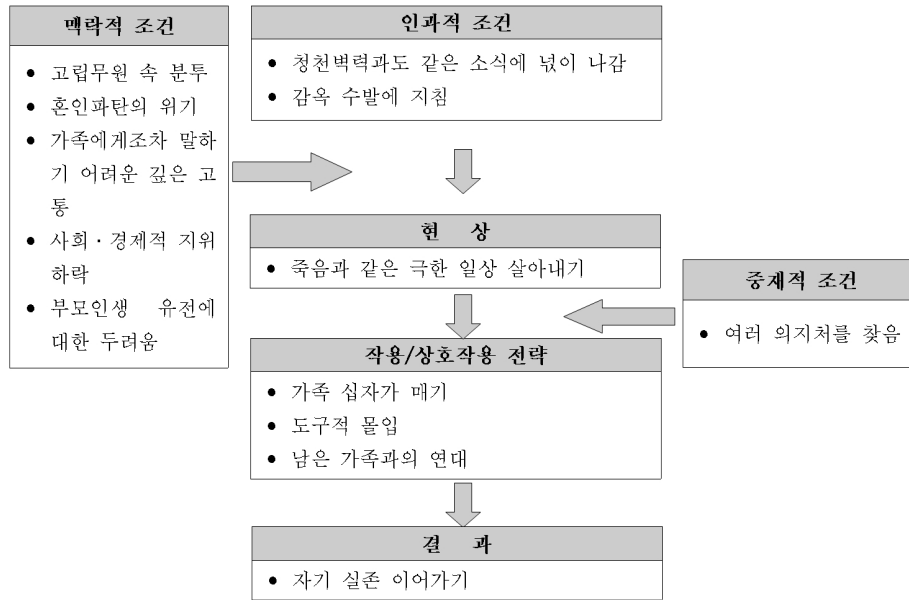


그림 1. 수감자 아내의 삶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하는 과정을 거쳤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원인이 되는 현상들로 구성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라는 현상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들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넘어 나감」,

「감옥 수발에 지침」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극도의 생애 피로감과 힘듦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2와 같다.

현상

현상이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 현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현상으로는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로 상정했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넘어 나감	기간	지속적 - 일시적
감옥 수발에 지침	강도	강함 - 약함

표 3.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	강도	강함 - 약함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고립무원 속 분투」, 「혼인파탄의 위기」, 「가족에게 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부모인생 유전에 대한 두려움」을 상정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와 같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구조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여러 의지처를 찾음」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5와 같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조절하고 다루는 의도적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가족 십자가 매기」, 「도구적 몰입」, 「남은 가족과의 연대」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6과 같다.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결과는 「자기 실존 이어가기」로 나타났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7과 같다.

표 4.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고립무원 속 분투	강도	강함 - 약함
혼인파탄의 위기	강도	강함 - 약함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	깊이	얕음 - 깊음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범위	전부 - 일부
부모인생 유전에 대한 두려움	강도	강함 - 약함

표 5.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여러 의지처를 찾음	강도	강함 - 약함

표 6.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가족 십자가 매기	강도	강함 - 약함
도구적 몰입	적극성	적극적 - 소극적
남은 가족과의 연대	강도	강함 - 약함

표 7.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기 실존 이어가기	영역	전부 - 일부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결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수감이후로 가정을 지켜내고 유지한 아내들의 경험의 경로를 그림 2에서처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탈진/소진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우울과 자살충동에 시달릴 정도로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다. 남편의 수감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고 낮이 나간 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혼자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거나 가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감옥 수발에 탈진/소진되었다.

추스림 단계

죽음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수감자의 아내들은 가족, 친구, 지인 등 주위 도움을 받으려 손을 뻗기 시작하고 추스림을 시작하였다. 작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국가적 지원도 받으면서 다시 기존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한다.

일상의 재구축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가정을 지키려는 각오로 일상을 재구축한다.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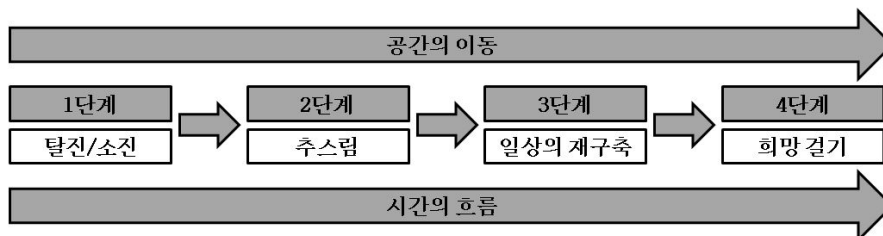


그림 2. 수감자 아내들의 삶에 관한 과정분석

을 잇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미나 외부 활동에 몰입하는가하면 친정과 시댁식구, 자녀가 연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일상 재구축의 힘을 얻는다.

희망결기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살면서 언제든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생각으로 역경을 받아들이고 버티려 노력했다. 또는, 자신의 운명을 팔자, 전생으로 인한 숙명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실존을 유지해 가면서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세상을 향한 재 비상을 꾀할 수 있었다.

선택코딩

핵심범주

본 연구는 『남편을 대신한 자리에서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가족 수용과 자기성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상정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이 수감되자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넋이 나갔다고 하였다. “이 일이 딱 있고 난 뒤부터 손도 까딱할 수 없고요. 살림이 안 살아졌어요.”(연구참여자 7)라는 구술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역경을 맞이하여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충분히 슬피할 겨를도 없이 어린 자녀를 돌보며 남편을 대신한 자리에서 전투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아내들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렸고,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껴안아야 했다. 남편의 수감으로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힘겨운 현실을 맞닥뜨린 아내들은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에 자책하기도 하고, 이혼이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남편을 떠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막막하니까 진짜 애라도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수감이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 이혼이 아니고 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연구참여자 6)라는 고민의 무게 속에 연구참여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남편이 사라지자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낮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위에 남편의 수감을 얘기하면 흉을 보지는 않을까 친구들은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견뎌야 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저 혼자 있다면 그게 아닐텐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은 앞으로 또 생각하는 게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나 이런 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연구참여자 4)라는 구술처럼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죽음과 같은 삶조차 살아내고 있었다. “결혼은 책임을…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하늘이 해결해야지. 쓰다달다 해서 헤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은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버틸 수 없죠.”(연구참여자 2)라는 신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굴곡진 삶의 변화 과정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야기 윤곽 서술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의 생애과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현상은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였다. “사실은 그 때

죽고 싶었죠. 옥탑방에 살았었거든요. 4층이었는데 너무 힘들면 우리 죽을래 소리를 한 번 애들에게 해봤어요.”(연구참여자 7) 예시한 구술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실제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충동에 시달릴 정도로 죽음 같은 극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을 살아간 원인이나 조건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넋이 나감』과 『감옥 수발에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수감소식을 듣고 “손도 까딱할 수 없는”, “살림이 안 살아지는” 상태에 놓인(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사별에 근접하는 큰 충격과(연구참여자 2)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수감된 남편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혼자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거나 수감된 남편을 돌보기 위해 영치금을 마련하는 것까지 모두 연구참여자의 몫이었기 때문에 감옥 수발에 지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고립무원 속 분투』, 『혼인 파탄의 위기』,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부모인생 유전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를 더욱 강화시켰다. 수감된 남편의 무죄를 믿고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재판 자료를 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연구참여자 8), 남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합의금을 빌리러 다니며(연구참여자 6), 직접 법정에서 남편을 변호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막중한 현실을 감당케 한 남편에 대한 분노로 남편을 떠날까하는(연구참여자 14) 생각을 하며 『혼인 파탄의 위기』에 놓였지만, ‘주위 사람들이 알면 무시 받진 않을까’ 속마음을 얘기하기 어려웠고, ‘이혼을 강요받진 않을까’ 친정 식구들에게도 남편 수감

사실에 대해 터놓기가 어려웠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 속에서도, 가족 생계를 위해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남편이 출소할 때까지 간병, 청소 등 낮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회적 낙인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지원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힘겹게 가족 경제를 책임지다보니 자녀들은 ‘거의 방치’되어 버리기 일 수였다.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에게 난폭하고 폭력적인 행동을(연구참여자 2) 하기도 하여 『부모인생 유전에 대한 두려움』이 연구 참여자에게 깊어져만 갔다.

이런 어려움이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 살아내기』 현상을 더욱 고착시키는 듯싶었으나 절망 속에서 희미하게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여러 의지처를 찾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남편의 수감을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주는 지인들, 돈을 빌려주는 친구들, 직장 상사, 자녀를 아버지처럼 돌봐주는 선생님들은 무너져가는 연구참여자에게 한줄기 빛이었다. 또한, 작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는 수감자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십자가 매기』, 『도구적 몰입』, 『남은 가족과의 연대』로 현실 고통을 잊으며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을 살아내고자 했다.

남편을 자신마저 등 돌리면 안 된다는 생각과(연구참여자 2), 자녀에 대한 책임감,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가족 십자가 매기』(연구참여자 2, 3, 4, 7, 14)에 착수하였고, 고통을 잊기 위해 책이나 요리 등 다른 곳에 신경을 돌려보거나(연구참여자 4) 취미생활을 해보려

하는 등 다양한 『도구적 몰입』을 시도하였다. 한편, 『남은 가족과의 연대』를 통해서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을 견뎌냈다. 친정과 시대식구의 현실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월세를 전전하다 친정집으로 아예 들어가 살면서 생활비를 줄여가거나 형제들이 자녀의 학업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0). 어려운 시기에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자녀도 큰 힘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최종적으로 『자기 실존 이어나가기』를 통해 역경을 받아들이고 버티려 노력했다. 집집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생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고, 남편의 수감이라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팔자 또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전생의 빚으로 인한 숙명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 갔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수감자^의 아내들의 경험에 대해 그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근거이론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로 인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수감자 아내들이 남편의 수감이라는 사건을 접한 후 경험한 다양한 현상과 그에 대한 반응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남편의 수감부터 출소까지 아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Strauss & Corbin, 1990). 자료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

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분석하여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낮이 나감』, 『감옥 수발에 지침』, 『고립무원 속 분투』 등 총 13개 범주로 정리하였고, 이를 아우르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상정했다.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을 배열하였고, 선택코딩을 통해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까지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 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는 무엇을 경험하며, 가정생활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수감자 아내는 남편의 수감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비밀을 간직한 채 남편의 체포와 재판, 수감과정을 홀로 감수하고 싸워야 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 연구(박선영, 신연희, 2012)를 살펴보면 미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체포상황, 재판과정, 교정시설 수감의 절차 중 수감자 이외의 가족과 자녀를 위한 별도교육을 제공하였다. 체포상황에서는 자녀의 심리적 외상을 고려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법집행, 교도소, 사법절차 등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부모의 체포 장면 목격으로 심리적 외상을 받는 경우, 자녀의 비행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선행연구들은(Jacobs, 1995; Johnston, 1991; Kemper & River, 1993) 부모의 수감과정에 대한 대처와 국가적 지원이 범죄의 되물림을 막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으로 분리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서적, 심리적, 학업 상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박선영, 신연희, 2012). 그러나 이처럼 체포부터 사법절차까지 별도의 지원이 활성화 되지 않은(박선영, 신연희, 2012)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남편 수감 이후 ‘죽음과 같은 극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아내가 홀로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야 했다. **돌연한 남편의 수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구직활동을 해야 했고, 피해자와 합의보고 남편을 빼내는 것에 신경 쓰느라 생활비 지원 정보를 놓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친정과 시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국의 부부는 심각한 갈등에도 가족에 대한 염려와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구혜경, 유영달, 2008; 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에서 재인용)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 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수감자 아내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편의 수감과정을 개인 몫으로 감당하는데에는 이러한 문화적 특성도 반영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체포, 재판, 수감과정에 있는 수감자의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아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자녀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각 부처별로 수용자 가족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감자 가족접견실, 체포 시 행동 수칙 수립,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등이 제작 보급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박선영, 신연희, 2012)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연구 참여자들이 수감 단계에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자녀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후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가장이 돌연 수감된 가족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내의 구직활동 지원 등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수감과정을 처음 접하는 아내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대처방식 등에 대한 안내 등 남편의 체포부터 사법절차까지 수감절차과정에서 겪는 아내의 실질적 고충이 반영된 정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힘겨운 생활과 맞닥뜨린 아내들의 정신건강 문제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아내들은 자살충동과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감된 남편의 아내들에 대한 연구(Wildeman et al., 2012)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남편의 수감이 아내의 우울증 삽화 및 삶에 대한 불만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 쉽사리 말할 곳이 없었고 남편 수감 사실이 알려지면 주위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할 것 같아 주변 지인들에게 자기 개방을 하지 못했으며 원가족에게조차 남편의 수감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하였다.** 수감자 가정에 대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도 수감자 아내들은 수치심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박선영, 신연희, 2012; 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 오히려 주위사람들의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눈초리에 시달리거나 이사를 하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며 사회생활을 회피했으며 자녀들은 몇 번씩 전학을 다니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철, 1992; Nobumoto, 2010/2014).

본 연구참여자의 상당수도 수치심으로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해왔고 심리적

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매우 필요한 상태였다.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분노, 결혼에 대한 후회와 빗 독촉으로 인한 압박 등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친정식구에게 짐이 된다는 미안함, 사회 경제적 지위 하락, 자녀 일탈에 대한 깊은 근심 등은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한 순간 수감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상황을 견디면서도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으로 극심한 고충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아내들에게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상담 시스템이 절실했다.

세 번째는 아내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이었다. **남편의 수감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냐는 질문에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14)에서 수감자 배우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우자가 느끼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경제문제(50.4%)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쉽사리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으며,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에도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 및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한 참여자는 자녀를 ‘거의 방치’했다고 표현했다. **남편이 수감된 후,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밖에도 교정시설 방문에 따르는 비용, 물건영치, 영치금 등 수감된 남편과 교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부담은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더했다. 이는 수감자 가족 지원관련 연구들에서 가장이 구금되었을 때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Raphael, 2011: 허경미, 2013에서 재인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아내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국가에서 수감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항이 무엇인지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 외에도 재산과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보호마저 제외당한 연구참여자가 있었는가 하면, 생활비 지원정보를 몰라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수감된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있다는 것을 대다수 가정은 수감이 되고 나서 동료 수감자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처럼, 생계 부양자의 수감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상황에서 빈곤한 수감자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했다.

수감자 아내들에게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은 생활고와 더불어 내적고통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아버지를 크게 원망하기도 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며 반항심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하였다. **다른 또래친구들의 아빠와 비교하며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며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린 것에 대해 후회하는 아내도 있었다.** 이는 수감자 자녀들이 부모와의 분리로 불안, 우울, 수치심 등 다양한 심리, 정서적 위기를 겪게 되고(Kampfer, 1995: 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에서 재인용; Parke & Clarke-Stewart, 2002), 부모가 범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긴다는(Eddy & Reid, 2002)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수감자 가족과 자녀를 지원하는 영국의 민간 단체인 팩트(Pact)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수감되고 자녀가 어떻게 돌봐지는지 국가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무관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Pact, 2012; 박선영, 신연희, 2012에서 재인용). 수감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책임은 한 수감자 아내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네 번째로 수감자 아내들이 가정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 과정 분석에서 탐색한 바와 같이 개인의 도구적 몰입, 남은 가족과의 연대, 의지처 찾기 등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힘든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책을 인생의 스승이자 삶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며 집중하고자 노력했으며 가만히 있으면 판생각이 나서 뭐라도 배우려 노력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취미 생활은 나중에 돈벌이로 활용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서 힘든 상황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친정식구나 시댁, 직장의 지인들과 친구들, 자녀의 선생님 등 주위 의지처는 수감자 아내가 남편 수감 중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지지체계로 작동했다.

Kushner와 Sher(1991)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편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설 때 타인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한 반면, 장기은폐 경향과 같은 회피요인은 타인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Cepeda-Benito & Short, 1998; Kelly & Achter, 1995; 김정연, 2006에서 재인용). 남편의 수감이라는 역경을 맞이한 아내들에게 수

치심은 자기 문제를 개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움 추구행동을 가로막는다. 남편 수감에 대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고 주변에서 홍보고 무시할까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워하며 외로움을 경험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감자 아내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노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수감기간동안 겪는 여러 심리, 경제적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수치심이 쉽게 유발되는 아내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oits(1983)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애정, 이해, 수용, 자존심 고양)와 도구적 지지(정보, 조언, 책임 있는 도움, 경제적 도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친정식구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거나 자녀의 학업을 도와주는 등의 도구적 지지 뿐 아니라, 시부모님이 매일 면회를 와주시거나, 자녀가 오토바이 폭주 등으로 방황할 때 담임선생님이 자녀상담을 해주는 등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수감자의 아내가 가족을 지켜내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이혼 후에 혼자 살아갈 삶이 막막하고 사회적 시선을 감당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는데(구혜경, 유영달, 2008; 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수감자 아내들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가정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면서도 자녀가 걱정돼서, 혼자 사는 것보단 나올 것 같아서 미처 가정을 떠나지 못하고 누구에게 고충을 털어놓지

도 못한 채 남편의 수감이라는 힘든 상황을 감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수감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실존적 방식으로 상황을 버텨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 힘들게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버티기도 하고, 남편의 수감이라는 역경이 종교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거나, 자신의 팔자와 숙명으로 인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국인의 자기 신세 조망양식으로 ‘팔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팔자타령은 기구하거나 한(恨) 많은 삶을 살았을 때, 운이 없을 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외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들이 기구한 운명적 삶이나 사건에 대해 팔자귀인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김지영, 김기범, 2005).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상황을 통제하고 견뎌내기 위해서 팔자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다양한 신념과 방식들로 수감자 아내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남편 수감 중 아내의 삶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피해자도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가해자의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감자 가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편견은 때론 수감자보다 그 자녀와 아내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감자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한계점은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참여자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주거지

원 대상 출소자의 아내이다.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힘든 경험에 대한 솔직한 심경보다 가정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보고가 아닌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원은 대체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던 출소자이고 연구참여자 남편의 수감 사유가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남편 수감 후 아내가 겪는 삶에 대한 연구였다. 후속 연구로는 출소자 아내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의 발달 정도에 따른 어려움이나 범죄 유형별 어려움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출소자 가족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정연 (2006). 도움 추구 태도와 귀인 양식 간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 김기범 (2005). 한국인의 자기신세 조망양식으로서 팔자(八字)의 이야기 분석과 통제신념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85-108.
- 나철 (1992). 가출청소년의 가족문제 및 선도방향. 한국청소년연구원 (편).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pp. 41-54).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동아일보 (2013, 11, 26). [보이지 않는 형벌, 흉악범의 가족] 사건전후 ‘달라진 생활’ 14명 심층분석. <http://news.donga.com/3/all/>

- 20131126/59136993/1에서 2015, 08, 05 자료 얻음.
- 박선영, 신연희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연구총서, 2012(3), 1-270.
- 법무연수원 편집부 (2015). 범죄백서 2014. 법무연수원.
- 서울신문 (2013, 01, 25). [주말 인사이드] “범죄자 딸이래”...예비 범죄자 낙인에 멎드는 수감자 자녀 7만명.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6014001>에서 2016, 01, 03 자료 얻음.
- 안혜영, 오수성, 한규석 (2012). 시설기관을 이용 중인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271-288.
- 이동훈, 방기연 (2014). 낮설게 다시 시작하기: 생활관 거주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5(6), 2645-2666.
- 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 절망 속에서 희망 찾기: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의 교도소 수감 및 출소에 대한 부인의 경험. 상담학연구, 16(4), 595-619.
-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회, 20(3), 449-480.
- 이명순, 박 경 (201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과 우울: 낙관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39-239, 8월.
- 이상일 (2014, 10, 14). 김도읍 의원 “교도소 출소자 5명 중 1명은 3년내 재복역”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69>에서 2015, 08, 05 자료 얻음.
- 이인곤 (2015).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3), 153-180.
- 이지민 (2007). 장기간 반복된 외상 피해자들의 증후군: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영아, 김연희 (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09-527.
- 조홍식, 민원홍, 김현민 (2010).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2), 163-199.
- 최영신 (2009).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지원 방안. 형사정책연구, 77, 997-1018.
- 최현정 (2006). 만성적 외상에 대한 해리경험이 성매매 여성의 외상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4).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모델 정립과 모델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http://koreha.or.kr/archives/106010>에서 2016, 01, 05 자료 얻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http://koreha.or.kr/support/support-work?item=5>에서 2015, 12, 22 자료 얻음.
- 허경미 (2013). 주요국의 수형자가족 지원서비스 분석 및 도입모델. 경찰학논총, 8(2), 329-354.
- Bahr, S. J., Armstrong, A. H., Gibbs, B. G., Harris, P. E., & Fisher, J. K. (2005). The reentry process: How parolees adjust to release

- from prison.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3(3).
- Bloom, B., & Steinhart, D. (1993). *Why Punish the Children?: A Reappraisal of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Mothers in America*. San Francisco: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8-64.
- Comfort, M. (2008). *Doing Time Together: Love and Family in the Shadow of the Pri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ddy, J. M., & Reid, J. B. (2002). *The Antisocial Behavior of Adolescent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din, K., Nelson, T. J., & Paranal, R. (2004). Fatherhood and Incarceration as Potential Turning Points in the Criminal Careers of Unskilled Men. In M. Patillo, D. Weiman, & B. Western (Eds.). *Imprisoning American: The Social Effects of Mass Incarceration* (pp. 46-75).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irshick, L. B. (1996). *Soledad women: Wives of prisoners speak ou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Green, B. L., Wilson, J. P., & Lindy, J. D. (1985). Conceptualiz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sychosocial framework. In C. Figley (Ed.). *Trauma and its wake* (pp. 53-69). PA: Brunner/Mazel.
- Hairston, C. F. (1988). Family ties during imprisonment: Do they influence future criminal activity. *Federal Probation*, 52(1), 48-52.
- Hatch, J. A. (2015). 교육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질적 연구 수행방법의 단계별 안내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진영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2년에 출판).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cobs, A. (1995). *Fathers, Marriage, and Welfare Reform*. Washington, DC: The Hudson Institute.
- Johnston, D. (1991). *Jailed mothers*. Pasadena, CA: Pacific Oaks Center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 Kemper, K. J., & Rivera, F. P. (1993). Parents in Jail. *Pediatrics*, 92(2), 261-264.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Nasser, R. L., & La Vinge, N. G. (2006). Family support in the prisoner reentry process: Expect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3(1), 93-106.
- Nesmith, A., & Ruhland, E. (2008).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hallenges and resiliency, in their own wor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10), 1119-1130.
- Nobumoto, S. (2014). 가해자 가족. (한진여 역). 섬앤섬.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Parke, R. D. & Clarke-Stewart, K. A. (2003). The effects of parental incarceration on children. *Prisoners once removed: The impact of incarceration and reentry o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189-232. 1차원고접수 : 2016. 01. 15.
심사통과접수 : 2016. 03. 02.
최종원고접수 : 2016. 03. 10.
- Parke, R. D., & Clarke-Stewart, K. A. (2002). Effects of prenatal incarceration on young children Papers prepared for the "From Prison to Home" Conference (January 30-31, 2002).
- Simmons, T., & O'Neill, G. (2001). Households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8(2).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Thoits, P. (1983). Dimensions of life events that influ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In H. Kaplan (Ed.), *Psychosocial di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Tolin, D. F., & Foa, E. B. (2006). Sex differences i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quantitative review of 25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2(6), 959.
- Wildeman, C., Schnittker, J., & Turney, K. (2012). Despair by association? The mental health of mothers with children by recently incarcerated fathe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2), 216-243.
- Yocum, A., & Nath, S. (2011). Anticipating father reentry: A qualitative study of children's and mothers' experienc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0(5), 286-304.

Lives of Exoffenders' Wives

DongHun Lee

Jiyeol Jeon

Juyeo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plore experience of offenders' wives during their husbands' incarceration. 13 ex-offenders' wives who received housing support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In open coding, 151 concepts, 32 subcategories, and 13 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In axial coding, central phenomenon was 'living in the throes of a kind of dying'. Intervention condition was 'searching for help'. Strategies were 'carrying of the cross for family', 'instrumental activities to overcome', and 'family solidarity'. Consequence was 'hold self-consciousness'. In selective coding, main theme was 'living like in a war zone, but there was much introspection and loving for the family'. Based upon the research outcomes, the needs for ex-offenders' families resiliency was discussed.

Key words : Ex-offenders' Wives, Experience of Wife,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